

독일 현대 디자인과 디자이너 직업의 발전사

History of Development of Modern Design and Designer Profession in the Germany

이 병 중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Lee, Byeong-Jong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keywords: disegno, Baukunst, mechanische Baukunst, Bauhaus, 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

1. 독일의 '디자인' 개념

독일어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화과정에서 형성된 신독일어 neues Deutsch로서,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산업생산제품의 형상 또는 형상설계를 칭한다. 즉, '다스 디자인테 das Designte(라틴어의 designatum, 디자인 되어진 것)'과 '다스 디자인엔 das Designen(라틴어의 designans, 디자인 하는 것)'이라는 두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 '다스 디자인테'라는 의미로서의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실용성, 사용성, 가시성, 인식성 등이 인지되는 형상의 사용가치와 질을 말한다. '다스 디자인엔'은 실용성, 사용성, 가시성, 인식성 등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설계적인 제품개발의 틀에서 형상개념의 개발과 형상부여 및 그 생산이라는 형상의 개발작업을 뜻한다⁽¹⁾. 여기에서 후자의 개념은 독일어 '게슈탈트 Gestaltung' 또는 '포름게부 Formgebu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디자이너 직업활동을 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자인 개념의 대상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디자인과 그 활동의 주체인 디자이너가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된 과정을,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변천(14세기-18세기), 현대 디자인의 시작(19세기-1950), 디자인의 과학화(1960-현재),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변천(14세기-18세기)

디자인의 역사는 인간의 물질 토대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기술은 생산을 위하여 도구를 다루는 일정 작업과정에 대한 것이다.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의 작업과정은 디자인과 그 실현이 하나로 통합된 생산활동이었다. 이를 희랍에서는 테크네 techné, 로마 시대에서는 아르스 ars, 즉 예술 Kunst(art)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예술은 특정 목적에 유용한 보편적 계율을 갖는 교육체제로 정의되고, 이 예술의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계승되었다⁽²⁾. 이러한 예술분야 전체는 건축가들의 직무였다. 그러나 당시의 건축은 - 기원전 31년에서 27년 사이에 쓰여진 건축가 비트루비우스 Marcus Vitruvius Pollios의 '건축 de architectura'과 1235년 온느꾸르 Villard de Honnecourt의 건축작업에 관한 글에서 정의하였듯이 - 도시와 건물을 건설하는 일 뿐만 아니라, 연결된 나무의 결합체로 정의되는 건설기기와 전쟁기 및 기타 여러 기술적 장비들과 같은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³⁾.

중세의 건축가는 기술의 실천적 측면에서 정신노동에 집중된 자율적 예술 artes liberales 활동을 하였다. 교회와 영주의 요구에 따른 종교의식과 상징표현의 계획으로부터 공간구성과 실내장식 그리고 조각과 회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건설계획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건설계획은 기계이론 mechanice theorio에 따라 계산되고 제어되었다⁽⁴⁾. 따라서 건축가는 건축의 과학 scientia를 연구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건축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중세의 이러한 건축활동은 쥘프트

zunft(guil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246년 슈트라스부르크 Straßburg에서 아르겐티우스 Albertus Argentius에 의해 석공, 조각가, 목수, 건축가로 구성된 최초의 바우히테 Bauhütte가 조직되고, 이러한 건축 쥘프트가 번성하기 시작하였다⁽⁵⁾.

14세기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하자, 건축가들이 과학적 생산계획과 그 실현이 통합된 예술활동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건축가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학자를 높게 평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육체적 생산활동을 통한 예술경험을 분리시키고 학습된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활동, 즉 오늘날 디자인의 어원인 디세뇨 disegno를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노동을 주재하는 법칙들을 검토하고 작품을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산정해 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⁶⁾. 그리고 바우히테에서도 점차 예술경험보다 학습된 과학을 중요시하고, 건축가들은 그들의 디자인 활동에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뒤러 Albrecht Dürer의 1525년 '컴파스와 자를 이용한 측량안내' 및 '응용기하학 개론' 그리고 1572년 성체건축에 관한 저술활동 등과 같은, 고대 예술과 과학에 대한 활발한 저술작업과 함께 실험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역학과 재료학 그리고 구조 및 기구학 등이 빠르게 발달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디자인이 스케치로 만연됨으로써 건축은 이제 육체적 수공업생산의 기술과는 구별되는, 정신적인 것으로 부상되었다.

17세기부터 자연과학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연과학 실험과 그 장치의 개발에 따라 왕성한 발전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기술의 지속적 진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8세기 산업화와 함께 과학은 급속히 보급되어, 기계의 구조를 기술할 뿐 아니라 기기의 전체 구성 및 그 설계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⁷⁾. 그 결과, 메카니셰 바우쿤스트 mechanische Baukunst(바우쿤스트 Baukunst: '건설 Bau'과 '예술 Kunst'이 결합된 '건축'을 칭하는 독일어, 이하 메카니셰 바우쿤스트 mechanische Baukunst를 기계건축이라 칭함)은 건축으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고, 점차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산업건설을 꾀하고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합목적적 교육기관 설립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1696년 베를린에 최초의 프로이센 아카데미 Preußische Akademie가 설립되고, 이때부터 회화, 조각, 건축과 같은 고급예술 hohe schönen Künste (Beaux Arts)과 기계예술 mechanische Künste (mechanical arts)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745년 브라운슈바이크 바우아카데미 Bauakademie in Braunschweig의 설립으로 바우마이스터 Baumeister(건축가)와 메카니셰 바우마이스터 mechanischer Baumeister(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과대학의 설립이 시작되었다⁽⁸⁾.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기계공학은 아직 기계건축이라는 건축의 범주안에 놓여 있었다. 그 반면에 - 건축이 자본주의화에 따라 중세 쥘프트적 종속관계와 작업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에 종속되고, 새로운

생산관계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건축개념 그 자체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건축가들 내부에서 처음으로 인간환경을 건설하는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요구와 책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의 시민들은 적은 건축비용, 공사기한 엄수, 기계기술적 능력 등에 큰 관심을 갖는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美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모든 사회영역에서 단지 과시적인 것만을 원하였고, 건축은 기본적인 상징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과 장식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 이제 갈수록 건축은 美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로서 자체의 규율을 스스로 설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가고, 그 속에서 옛 양식의 모방이 확산되어 갔다.

3. 현대 디자인의 시작(19세기-1950)

독일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물리적 생산을 위한 기계구조의 개선, 운동기계의 새로운 원리의 응용, 새로운 공정의 개발 등 생산의 기술적 기반의 완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한 실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체계 구축에 주력하였다. 고급예술과 기계예술을 담당하던 기존의 예술 아카데미 Kunstakademie들은 재정비되었다. 또한 1826년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 école polytechnique을 모델로, 1826년 칼스루에 폴리테크닉 Polytechnik in Karlsruhe 설립을 시작으로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폴리테크닉이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기계건축이 과학적인 마쉬넨바우 Maschinenbau(기계공학)로, 즉 수학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과학분야로 빠르게 정립되어 갔다. 그러나 1844년 프로이센 예술산업박람회 preussische Kunstgewerbeausstellung가 베를린에서 열렸을 때에도 기계공학은 건축의 기초 위에 있었다. 여기에서 마쉬넨바우어 Maschinenbauer(기계공학자, 엔지니어)는 여전히 마쉬넨-바우마이스터 Maschinen-Baumeister, 즉 기계를 만드는 바우마이스터였다^[10]. 이러한 역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일에서의 기계공학은 기계건축, 즉 기계제작을 위한 설계기술의 개발에 정진하여, 기계요소설계 machine elements design, 기계설계 machine design, 엔지니어링 디자인 engineering design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은 또한, 독일에서 최초로 현대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예술박물관 Kunstgewerbemuseum(Museum of Industrial Art)과 산업예술학교 Kunstgewerbeschule(School of Industrial Art)들이 수학, 물리, 화학, 기술, 건축론, 기계공학, 기계제도 등의 교과과정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양성하였다^[11].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기술기반 확장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 되었다. 이제 공학은 발전된 전문과학분야로서의 고유 전문성을 획득하고, 점차 세분화되어 갔다. 그리고 공학 교육기관은 대학에 상응하는 규약을 얻게되어, 마침내 1899년 공과대학의 박사학위가 인가되었다^[12]. 그 반면에, 건축은 스스로 오로지 고급예술의 개념에 몰입하여 건축과 무관한 모든 종류의 예술규범을 받아들여 함으로써, 극단적인 '예술을 위한 예술 Kunst für die Kunst'로 만연되었다^[13]. 따라서 건축가는 자유영업자로서 산업기술로부터 이탈되어, 자신의 활동영역을 단지 건물의 미적-예술적 측면으로 좁힘으로써, 수공예적 예술경험에 몰입하였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 일상용품들은 인간정신의 산물이기보다 오히려 인간기술의 산물이기, 美 보다 실용적인 목적에 이바지하는 일상용품들은 고급예술이 아니며, 따라서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이

때부터 현대적 의미와 유사한 산업생산제품의 디자인이 엔지니어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예술과 실용예술의 분리는 1851년 런던에서 열린 제 1회 세계박람회 이후 산업제품에 있어서 美의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고급예술과 실용예술을 참된 예술영역으로 재편성하고, 건축의 과제를 산업발전을 위하여 그 통합된 예술과 사회에 대한 관계로 규정하는 새로운 건축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14]. 이러한 새로이 변화된 건축은 쟬퍼 Gottfried Semper, 로스 Adolf Loos, 베렌스 Peter Behrens와 같은 일련의 건축가들에 의해 현대 디자인으로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공예적 예술실현의 연습에 몰입된 당시의 건축교육에 반대한 바우하우스 Bauhaus에서는 - 과거 바우히테의 예술전통을 되살려 산업기술의 사회문화적 통일을 꾀하고자 산업기술에 바탕을 둔 예술활동들을 다양하게 실험해나감으로써 - 현대 건축과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전문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형성되지 않았고, 디자인 활동은 주로 바우하우스를 계승하는 건축가 그리고 포르쉐 Ferdinand Porsche와 같은 공학 디자이너 engineering designer의 몫이었다.

4. 디자인의 전문화(1960-현재)

전문 디자이너는 울름조형대학 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울름조형대학은 미국식 상업주의에 매몰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예술이 사회성을 상실하고 다시 '예술을 위한 예술'로 치닫게되자, 인본적인 민주사회의 문화건설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 예술의 길을 모색하였다. 우선 반사회적 예술가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예술과 산업기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의 총체적인 사회적 통일을 이루는 환경디자인 Umweltgestaltung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환경디자인은 설계론 Konstruktionslehre(Engineering Design)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체계로 정립됨으로써, 오늘날까지 독일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울름조형대학의 디자인 과학화의 노력은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을 필두로 오펜바흐 조형대학 Hochschule für Gestaltung Offenbach am Main 등의, 과학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과학화를 모색하던 대학들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일에서 5개의 디자인대학이 디플롬 Diplom 학위를 인준받게 되었다^[15]. 그러나 80년대 젊은 디자이너, 건축가, 순수예술가 Freie Künstler 들로부터 일어난 신독일디자인 Neues Deutsches Design 운동은 그동안 분명하게 전문화되어진 순수예술과 건축과 디자인의 영역을 어지없이 무너트렸다. 결국, 1987년 카셀 도쿠멘타 Dokumenta Kassel를 기점으로 순수예술과 건축과 디자인의 개념이 모호한 현대예술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버림으로써, 90년대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개념은 극도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1] H. Seeger, DESIGN, Springer Verlag, 1992 Berlin, p.11
 [2],[6] W. Totarkiewicz, 김채현, *예술개념의 역사*, 열화당, 1986, p.25, pp.32
 [3],[12] F. Klemm, 이필형, *기술의 역사, 미래사*, 1992, p.36, p.238
 [4],[5],[9],[14] H. Ricken, *Der Architekt*, DVA, 1990 Stuttgart, p.16, p.18, p.34, p.38
 [7] 소련과학아카데미, 홍성욱, *세계기술사*, 동지, 1990, p.189
 [8],[13] M. Mislin, *Zum Verhältnis von Architektur, Kunstgewerbe und Industrie 1790-1850*, Packeis und Pressglas, Anabas, 1987 Gießen, p.41
 [10] G. Spur, *Vom Wandel der industriellen Welt durch Werkzeugmaschinen*, Carl Hanser Verlag, 1991 München
 [11] M. Franke, *Entstehungsgeschichte des königlichen Kunstgewerbemuseum in Berlin*, Packeis und Pressglas, ibid, p.174
 [15] S. Moser, *Ansätze zu einer Design-Theorie*, 1975 HdBK Braunschweig